



회복과 새로운 부흥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야베스의 기도 (대상 4: 9-10)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이가봇의 신앙” (사무엘상 4:19-22)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첫 전쟁에서 승리는 커녕 4000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30,000 명이 죽는 대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 세거나,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이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태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탓을 하는 것입니다. 3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놀랍게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은 늘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라고 남을 탓합니다. 탓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전쟁에 지고 돌아오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가져 오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적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했을 때 그 말씀과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승리는 말씀 그 자체를 아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넉넉한 삶, 섬기는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 안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소식

-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2. 삶 성경공부** - 한나 전도회 생명의 삶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 3. 운영 위원회** - 오늘 오후 1:30 분에 운영
위원회로 모입니다.
- 4. 제직 기도회** - 5 월 30 일 토요일 저녁 6 시에
제직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 5. 단기선교** - 태국 단기 선교를 10 월 15 일부터
31 일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선교 부장님이나
목사님께 알려 주십시오. 목양 칼럼을
참조해 주십시오.
- 6. 소천(召天)** - 성미숙 성도님의 어머니이신
홍희재 집사님께서 5/15 일에
소천하셨습니다.

행사 및 모임

5 월	운영 위원회	5 월 17 일 (주일)
	제직 기도회	5 월 30 일 (토요일저녁)
	각기관 월례회	5 월 31 일 (주일)
	태국단기 선교	10 월 15 일-31 일 (계획)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17	5/24	5/31	6/07
대표기도	유 영민	이 강선	이 화선	정 병철
헌화성도	김 영란	김 현옥	서 소연	손 정임 이 삼희
봉사당번	믿음구역	소망구역	각기관 월례회	소망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 경주	510-634-9374	정 주환(소망공동체)
	유 경애	925-719-3673	장 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 영민	415-205-2631	박 완주(헝가리집시)
	손 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김 영란	510-468-4720	김 정림 (탄자니아)
	한 영미	510-410-8718	조 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	12 주
성경 통독방	52 주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요한복음 14 장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집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집이란 건물을 말하는 하우스 (House) 가 아닙니다. 영어로 홈 (Home) 입니다. 그렇다고 '가족'(family)만으로도 다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home 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항수병'을 말할 때 '하우스 식니스' (house-sickness) 라고 하지 않고 '홈 식니스' (homesickness) 라고 합니다. 고향을 말할 때도 홈타운 (Hometown), 홈랜드 (Homeland) 라고 하고 모교를 다시 찾는 것을 홈 컴잉 (homecoming) 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홈은 가정을 넘어, 우리가 원래 속했던 자리, 따뜻함과 친숙함, 그리고 그리움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향 한국을 떠나 미국이란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이기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삶이 지칠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알려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라고 알려 줍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하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곳,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 평강과 행복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인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잠시 사는 삶을 안타까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떠날 날, 하늘의 고향에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 본향은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곳을 생각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그곳은 분명 이 땅과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곳임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반드시 돌아갈 하늘의 집인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집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길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 본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곳은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23 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510-415-0671	timjdsn@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